



### 독일월드컵 D-29

- 글 쓰는 순서
- ① 아드보카트호 출항
- ② 주요 경기 '빅 5'
- ③ G조 주요 병기들
- ④ 독일을 빛낼 새 별들
- ⑤ 프랑크푸르트를 가다

## 잉글랜드 '바이킹 징크스' 벗을까?



<독일 발락>



▲ 6월15일 오전 4시 도르트문트  
A조에서는 독일이 16강에 오르고 폴란드와 에콰도르가 조 2위를 다툰 것으로 점쳐진다. 독일은 폴란드를 넘어야만 조 1위 자리를 다질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독일이 19위로 폴란드(28위)에 앞서고 객관적인 전력도 한 수 위로 평가받는다.



<잉글랜드 베컴>



▲ 6월21일 오전 4시 쾰른  
두 팀의 대결은 잉글랜드의 '바이킹 징크스'로 축약된다. 잉글랜드는 1968년 이후 월드컵을 포함해 10차례 A매치에서 스웨덴을 단 한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스웨덴이 38년간 역대전적에서 4승6무로 앞서 있다.



<네덜란드 반데바르트>



▲ 6월22일 오전 4시 프랑크푸르트  
전문가들은 8개 조 가운데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코트디부아르, 세르비아-몬테네그로가 한데 묶인 C조를 한결같이 '죽음의 조'로 꼽는다.  
C조에서 최고의 빅매치는 '오렌지군단' 네덜란드와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의 격돌이다.  
두 팀은 화려한 공격력으로 역대 다섯 차례 맞대결에서 14골을 주고받는 공방을 펼쳤다.



<이탈리아 토니>



▲ 6월22일 오후 11시 함부르크  
이탈리아와 체코의 대결은 팽팽한 힘겨루기다.  
이탈리아는 6대 우승 후보 중 한팀이다. 그러나 체코는 최근 이탈리아에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 유럽선수권부터 세 차례 대결에서 2승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스페인 푸울>



▲ 6월14일 오후 10시 라이프치히  
'무적함대' 스페인과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하는 우크라이나는 객관적으로는 비교하기 힘든 상대다.  
스페인 FIFA 랭킹 5위, 우크라이나가 41위로 무려 36계단이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경기가 빅 매치에 꼽히는 건 우크라이나산 득점기계 안드리 세브첸코(AC 밀란) 때문이다.  
세계가 공인한 최고의 골잡이 반열에 있는 세브첸코는 미드필더진의 도움만 받는다면 언제든 스페인의 골문을 가를 준비가 돼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폴란드 프랑코프스키>



<스웨덴 이브라히모비치>



<아르헨티나 리케메>



<체코 네드베드>



<우크라이나 세브첸코>

## 태극전사 23명 오늘 확정

### 아드보카트, 오후 3시30분 발표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강을 넘어 국민적 열원을 실현할 아드보카트호 태극전사 23인의 명단이 11일 발표된다.  
해외파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뒤 현재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 덕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이날 오전 11시45분 네덜란드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곧장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로 이동한 뒤 오후 3시30분 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한국 축구의 명운을 짊어질 출전선수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명단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5월15일) 이전에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내진다.  
엔트리에 뽑힌 선수 가운데 명백한 부상 엔트리에 뽑힌 선수 가운데 명백한 부상

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본선 경기 24시간 전까지 한 명을 교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명단은 그대로 월드컵 출전 엔트리로 굳어진다.

현재 골키퍼 이은재(수원), 중앙 수비수 최진철(전북), 김진규(이와타), 좌우 윙백 이영표(토트넘), 김동진(FC서울), 조원희(수원), 공격형 미드필더 박지성(맨유), 김두현(성남), 수비형 미드필더 김남일(수원),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 이호(울산), 중앙 포워드 안정환(뒤스부르크), 조재진(시미즈), 원포워드 이천수(울산), 박주영(FC서울), 설기현(울버햄프턴) 등 16명은 엔트리 선발이 거의 확정적이다.

골키퍼 김병지(FC서울), 김영광(전남), 중앙 수비수 김상식(성남), 김영철(성남), 원포워드 정경호(광주) 등 5명은 '선발 유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 한국팀 G조에선 어떤색 옷 입나

대프랑스전	대프랑스전	대스위스전
토고	프랑스	스위스
· 홈색-원색-방한색 · 경기일정: 6.13(22시)	· 방한색-원색-방한색 · 경기일정: 6.19(04시)	· 원색-원색-원색 · 경기일정: 6.23(04시)

## '끝나지 않은 신화, 하나되는 한국'

### 월드컵 참가 32개국 슬로건 확정

2006 독일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32개 참가국의 슬로건을 가린 슬로건이 확정됐다.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 '피파닷컴'은 월드컵 공식 스폰서인 현대자동차와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축구팬 공모를 통해 선정한 32개 월드컵 참가국의 슬로건을 최근 발표했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한국 대표팀의 슬로건은 '끝나지 않은 신화, 하나되는 한국(Neverending legend, united Korea)'이다.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올랐던 지난 2002년의 신화를 독일에서도 다시 한번 써 보자는 팬들의 열원을 고스란히 답아 냈다.  
한국의 본선 상대국인 프랑스는 자국 출신으로 월드컵을 창시한 졸 리메 전(前)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기리며 '자유, 평등, 졸 리메(Liberte, Egalite, Jules Rimet)'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스위스는 '2006, 스위스 시간입니다(2006, it's Swiss o'clock)'라는 구호로 이번 독일 월드컵을 자국의 잔치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토고는 '승리를 향한 열정과 성공에 대한 갈증(A passion to win and a thirst to succeed)'으로 정했다.  
개최국 독일은 '우리는 축구다(We are football)'라는 간결한 표현으로 우승 의지를 드러냈다.

## 전국은 바다와 섬에 꼭~빠졌다!

대신분 위한 전문 이탈리아 레스토랑

**1. 신선한 바다**  
바다를 낚아 올린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로 만든 요리  
1인 10,000원

**2. 참주 상의 설명회**  
이탈리아 요리사 3명  
이탈리아 요리사 3명  
이탈리아 요리사 3명

**3. 신선한 바닷물**  
바다를 낚아 올린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로 만든 요리  
1인 10,000원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산동 1-1  
전화: 061-223-1111

## 베니스 수입가구

venice.co.kr

이태리 엔틱가구 전문점

- 이태리가구 직수입 - 한국 도, 소매 최저가 판매
- 베니스의 문화유산을 담은 가구 직수입점
- 전국 100여개 지점 운영
- 서비스: 사일, 민원선 전화상담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산동 1-1  
전화: 061-226-7565~7

스포츠 아울렛 - 슈즈월드샵 - 패션 아울렛 - 라바스 - 레디스 - 다이애나 명품관

www.100459.com